

News

2분기 대손충당금 적절하게 쌓아라…당국 권고에 딜레마 빠진 은행권

한국경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요 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손충당금 관련 회의…2분기 마무리를 앞두고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주요 이슈로… 머리를 맞댔으나 특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금융위,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등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에 차질 빚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규모 쌓아줄 것 주

1·2차 소상공인대출 소진율 '뚝' … "시중銀 문턱 더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1·2차 대출 소진율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문턱을 추가로 더 낮춰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 정부가 1차 이차보전대출의 한도 소진에 맞춰 편성한 2차 소상공인대출도 17일 기준 3,115억원 집해돼 소진속도가 느린 편…

규제·저금리에 이달 신용대출 2조 폭증

서울경제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8,685억원 늘어…약 보름 만에 전달 월간 증가액(1조689억원)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주택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더해 싼 금리로 돈을 빌려 증시에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풀이

케이뱅크, 설립 이래 최대 증자…내달 총 자본금 9017억원 조성

헤럴드경제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19일 전환주식 3,147만 340주, 약 1,574억원 규모 신주 발행을 의결…전환 신주와 합하면 약 4,000억원 증자 예정 케이뱅크, "지난 4월 결의한 5,949억원 규모 유상증자는 7월 중 이사회를 열어 3대 주주에 2,392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미발행 예정"

저금리 돌파구는 해외 vs "국내가 유리"…보험업 엇갈린 전략

연합뉴스

해외 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생명보험사는 업계 2위를 다투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업계 1위 삼성생명의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18년 7.4%로 커졌지만, 이후에는 작년 7.2%와 올해 1분기 7.0%로 큰 변화가 없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논란, 대법원 간다

머니투데이

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자차보험 담보 선처리 후 구상 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고 공동 대응을 조율한 지 50년이 넘은 자기부담금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는 한편 보험 약관 수정도 추진한다는 방침

'옵티머스 환매중단' 연쇄 확산하나…금주 분수령

연합뉴스

대체투자 전문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이번 주 이번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

지난주 환매가 중단된 펀드 외에 이번 주 또 다른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펀드들에 환매 역시 중단된다면 사태는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페이사업 글로벌화에 '박차'

한국금융신문

올해 초 중국 텐센트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미래에셋대우는 가맹점 2,000곳 돌파를 목전…연내 1만곳의 가맹점을 확보해 글로벌 결제 시장을 본격화 지난해 6월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 등록을 마친 뒤 같은해 9월 중국 해외 간편 결제서비스 제공회사인 텐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주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